

# 세계무대에 뛰어든 중국의 도시외교

[글] 신종호 실장 jonghos@kinu.or.kr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 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어제와 오늘

도시외교는 국가(중앙정부) 주도의 전통적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나 도시(City)라는 행위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외교방식이다. 오늘날 각국의 도시외교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가 동시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 추세를 반영하여 갈수록 증시되고 있다.

중국의 도시외교는 세계화 추세와 개혁개방의 산물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력분산(devolution of power)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방정부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확대되었다. 특히 31개의 성(省, Province)급 지방정부는 높은 수준의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 및 효율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외정책의 지방화(localization of foreign policy)를 주도해왔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활동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도하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외교'라고 할 수 있고, 각급 지방정부나 도시들이 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대외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는 '도시외교'라 칭할 수 있다. 2014년 5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도시외교(城市外交)의 중요성을 공식 언급했고,<sup>1</sup> 그 후로 도시외교의 주제, 목적, 내용, 형식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도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외교정책과 조화를 꾀하면서 자체의 안전과 발전 및 번영에 기여하는 활동에 나서고 있다. 다만 국가 주권이나 영토 안정과 같은 상위정치(high politics) 영역보

1 习近平, 在中国国际友好大会暨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成立60周年纪念活动上的讲话, 人民日报, 2014. 05. 16; 최근 중국의 도시외교 전략에 대한 논의는 李小林 编, 2016, 城市外交(理论与实践),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참조.

다는 수출입 촉진이나 외자 유치 및 문화교류 등과 같은 하위정치(low politics) 영역에 집중하고, 방문·담판·교섭·조약·국제회의와 국제조직 참여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 관련 법률과 제도 및 규범을 준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지방정부의 자율성 면에서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는 중국 헌법상 외교(外交, diplomacy) 업무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관리한다는 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sup>2</sup> 중앙정부는 “대외사무, 외국과의 조약 및 협정 체결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경제·교육·과학·문화, 도시건설·공안·사법 등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각급 지방정부는 외사(外事 foreign affairs)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외사판공실을 두고 있고, 그 임무 역시 “중앙정부의 대외정책 방침에 부합하고, 해당 지방정부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발전 수요에도 부합하도록 업무를 추진하며, 외국 지도자와 대표단에 대한 접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활동과 같은 외사(外事, foreign affairs) 업무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국무원 등)의 업무 지시 혹은 지도(領導)를 받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모든 국가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공산당이 주관하는 ‘당-국가(party-state)’ 체제로, 지방의 각급 공산당 조직은 당 중앙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 또한 2001년 중국 국무원은 ‘전국 외사관리업무에 관한 약간의 결정’<sup>3</sup>을 발표하면서 “통일적 지도(統一領導), 체계적 관리(歸口管理), 등급별 책임(分級負責), 협조 안배(協調配合)” 등의 원칙을 강조한바, 각급 지방정부의 외사 부문은 상급 정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이러한 체계적 특성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중국 지도부가 도시외교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고, 각급 지방정부 역시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도시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외교 전략의 유형과 사례 및 전망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sup>2</sup> 중국정부망([http://www.gov.cn/gongbao/content/2004/content\\_62714.htm](http://www.gov.cn/gongbao/content/2004/content_62714.htm)).

<sup>3</sup> 중국 국무원, 关于全国外事管理工作的若干规定, 2000.

## 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네 가지 유형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방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지방정부 외교’ 혹은 ‘도시외교’를 추진해왔다. 첫째, 우호자매도시 관계 형성은 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전통적인 방식이다. 1973년 텐진(天津)시와 일본 고베(神戸)시가 맨 처음 우호도시를 맺은 이후,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대외 우호도시 체결에

표1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 우호도시 체결 현황(1973-2017.5)

연도	우호도시 체결 수	누적 합계	연도	우호도시 체결 수	누적 합계
1973	2	2	1996	43	710
1974	3	5	1997	72	782
1975	0	5	1998	64	846
1976	0	5	1999	62	908
1977	0	5	2000	75	983
1978	1	6	2001	48	1031
1979	14	20	2002	63	1094
1980	17	37	2003	50	1144
1981	22	59	2004	52	1196
1982	30	89	2005	86	1282
1983	26	115	2006	90	1372
1984	29	144	2007	99	1471
1985	54	198	2008	93	1564
1986	38	236	2009	89	1653
1987	47	283	2010	82	1735
1988	38	321	2011	109	1844
1989	17	338	2012	117	1961
1990	20	358	2013	110	2071
1991	25	383	2014	108	2179
1992	59	442	2015	128	2307
1993	67	509	2016	122	2429
1994	90	599	2017	3	2432
1995	68	667			

자료 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http://www.cifca.org.cn/Web/YouChengTongJi.aspx>).

적극 노력해왔다. 2017년 5월 말 현재 중국의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476개 도시는 전 세계 135개 국가의 508개 광역지방정부 및 1,593개 도시와 2,432쌍의 우호도시 관계를 체결한 상태다. 이 가운데 장쑤성(江蘇省) 304개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산둥성(山東省) 185개, 광둥성(廣東省) 178개, 저장성(浙江省) 101개, 광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101개, 허난성(河南省) 97개, 후베이성(湖北省) 89개 순이다.<sup>4</sup> 도시 경쟁력이 뛰어난 동부 연해지역 지방정부는 여전히 활발한 도시외교를 전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서부 내륙의 지방정부와 도시들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외교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경제통상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대외정책과 조화하는 도시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발전과 번영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발전전략이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비하고자 수출입 촉진과 외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 분야 역시 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예컨대 국제행사나 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거나, 문화·교육·체육 대표단의 해외 우호교류 및 다양한 분야의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도시외교는 해당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높다.

넷째,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의 초국경 협력 역시 도시외교의 중요한 특징이다. 예컨대 내몽골자치구 외사판공실은 러시아와 몽골 간 변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러시아-몽골처(俄蒙处)’를 설립했고, 윈난성(雲南省) 정부는 외교부의 협조 아래 접경국가(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와의 변경선에 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중국정부가 ‘육상·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전략 구상을 제시한 이후 각 지방정부는 연선(沿線)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국제회의의 참여와 국제기구 가입, 인도주의적 대외원조, 초국경 환경협력 등도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유형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분류되는 중국의 도시외교 유형 가운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가장 많이 보장되는 방식은 우호자매도시 체결이다. 경제통상 분야의 도시외교 역시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반영되지만 국가 발전전략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회문화 교류는 국가관계를 강화하거나 경색된 국가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한편 초국경 협력 유형의

<sup>4</sup> 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  
(<http://www.cifca.org.cn/Web/YouChengTongJi.aspx>).

도시외교는 대부분 국가 주권이나 영토 안정과 같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해당하는 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연계가 매우 중시된다.

##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인 또는 협력 파트너로 머무나

중국 지방정부는 도시외교를 통해 중앙정부의 대리인(agent) 혹은 협력 파트너(cooperative partner) 역할을 수행하면서 특정 분야에서는 해당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자율성의 폭에 따라 네 가지 특성을 나타내는데,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첫째, 중국 지방정부는 도시외교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의 외사 업무 자체가 국가 주권과 총체적인 국가 대외전략의 틀 안에서 작동되고 있고, 국제교류 활동은 중앙정부의 수권(授權) 혹은 정책적 지도 아래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국가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에서 벗어난 도시외교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완전한 독립성을 지닌 행위자가 아닌 '제한적인 자율성'을 지닌 채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개혁개방 이전의 외사 업무에서 가장 잘 두드러지며, 개혁 이후에는 주로 상위정치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1995년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대만 당국의 '금전외교(銀彈外交)'가 진행되었을 때 중국과 파푸아뉴기니의 관계는 경색되었다. 그러나 파푸아뉴기니 독립 25주년을 맞아 산둥성 지난(濟南)시는 외교부의 지휘 아래 자매도시인 포트모르즈비(Port Moresby)에 우호대표단을 파견하여 4회에 걸친 공연을 하였다. 이후 중국과 파푸아뉴기니 관계는 급속히 호전되었다. 2001년 상하이(上海) APEC 회의나 2010년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 당시에 도 지방정부의 대표단은 중앙정부의 위탁을 받아 미수교 국가를 방문하여 국교 수립을 추진하였고, 외교관계가 경색된 국가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등 '비공식 외교'를 펼쳤다.

둘째, 중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협력 파트너'로서 도시외교 혹은 대외교류 활동에 종사한다. 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과 정책 틀 안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국가 대외정책 목표 추진에 기여하면서 해당 지방정부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대외교류 방식으로써

<sup>5</sup> 신중호, 2014,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현대중국연구』, 제16집 1호, pp.1-25 내용을 수정 보완함.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협력 파트너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는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지도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동북지방과 서북지역 지방정부는 중앙아시아나 러시아와 변경무역이나 에너지외교 등에 관심을 두고 있고, 산둥성과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지방정부는 한국의 각 지방정부와 공업단지 개발 및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서남 지역(광시, 윈난, 푸이저우 등)은 아세안과 지역협력 및 메콩강 유역 경제협력 등과 같은 소지역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 지도부가 주변외교(周邊外交)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 개최된 ‘주변외교공작좌담회’는 중앙정부 대외정책의 협력 파트너로 기능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이 주변국들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해양 권익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필요 및 명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점도 그러한 역할을 입증한다.

예를 들어 중국 국가해양국 류츠구이(劉賜貴) 국장은 2012년 10월 광둥성 선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선전(深圳)시와 같은 연해지역 지방정부가 해양 종합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국은 2012년 7월 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다툼이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 군도) 등 남중국해 분쟁 도서를 담당하기 위해 하이난(海南)성 산하에 썌사(三沙)시를 설립하여 일방적인 행정권 행사를 개시했고, 11월에는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가 썌사시 주변에서 외국 선박의 영해 진입과 어로행위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는 도시외교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적 이익 수호자’ 역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개혁시기 중국 지방정부는 경제 분야에서의 높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이익 향상에 집중해왔으며, 특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서방 선진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토대로 한 외자 도입 및 다국적기업 유치에 힘써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저장성 이우(義烏)시가 보여주었다. 현금 단위의 이우시는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주어지는 정책적 혜택도 없었고 샤먼(廈門)이나 선전처럼 천혜의 지리적 조건도 아니었으나, 중앙정부의 경제외교 전략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외 경제교류와 인적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향형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개혁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대외무역과 국제

경제활동을 고취하기 위해 성 소속의 대외무역회사의 활동을 촉진했다. 이에 따라 각 성은 대외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외환수입을 일부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수입을 해당 지방의 수출입 화물과 설비투자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항목을 비준했다. 이처럼 개혁개방 시기에 추진된 대외무역과 직접투자 유치는 성급 정부의 대외교류에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다. 일례로, 산둥성 정부는 한국과 양자 간 무역 확대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진정함으로써 한·중 수교 정상화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다.

넷째, 중국의 도시외교는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정치적 성장기반'이었다. 중국은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하지만 중국정치에서 지도자들의 지방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5년마다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지방정부 출신 지도자들이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자체적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부분과 중앙정부와의 협조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다양한 도시외교 경험은 향후 중앙정부에 진출하여 대외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

## 변화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중앙정부의 대외정책 총 방침과 기본원칙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외정책의 대리인 혹은 협력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보유한 권한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이익 추구에 집중했다. 지방정부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대외정책 결정을 위한 사전 정보수집 및 자문 과정에서 크고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해외진출 기업 가운데 20%가 지방정부 소속이라는 점은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입증한다.

국내정치의 차원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지방정부의 경제이익 수요 사이에 잠재적 충돌이 존재할 때,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은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시나 정책 방침에 복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가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거나 국가 대외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형태의 대외행위는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의 헌법상 ‘외교’ 업무는 중앙정부의 고유 영역이며, 외사 업무 역시 기본적으로 중앙의 지방에 대한 영도(領導)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외사 분야에서의 자율권과 영향력은 좀 더 다양한 형태로 강화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빠른 정책결정 시스템을 보유한 지방정부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독립적인 이익주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대외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기 힘든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권이나 영토문제 등과 같은 상위정치 영역에서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대리인 혹은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고, 하위정치 영역인 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는 지방정부에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자율권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및 각급 지방정부의 발전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전략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은 시진핑-리커창 지도부 출범 이후 기존의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지방정부 역시 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도시외교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나 베이징과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대도시뿐만 아니라 제 2,3선 도시들도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도시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급 지방정부들의 도시외교 전략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의 비교우위를 발굴함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맞춤형’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력이 우위에 있는 중국 동부 연해지역 지방정부와 신흥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서부 내륙의 지방정부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사회의 중심지인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도시외교 ‘자원(resources)’을 발굴하여 맞춤형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도시 간 교류협력의 다양화를 통해 실질적인 도시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역사·문화·관광·환경 등 분야



에 대한 다양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 중서부 내륙 지방정부가 최근 들어 도시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지방정부 및 도시들과의 이슈별·테마별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도시외교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를 총괄하는 외사관공실 담당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경제·문화·교육계 인사들과의 교류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 최고지도자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경험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지방정부 지도자 간 다양한 형태의 ‘전략 대화’를 통해 접촉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W**

### 참고문헌

- 신중호, 2014.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현대중국연구, 제16집 1호, pp.1-25.
- 중국국무원, 关于全国外事管理工作的若干规定, 2000.
- 중국정부망, 中華人民共和國憲法([http://www.gov.cn/gongbao/content/2004/content\\_62714.htm](http://www.gov.cn/gongbao/content/2004/content_62714.htm)).
- 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 홈페이지(<http://www.cifca.org.cn/Web/YouChengTongJi.aspx>).
- 高尚涛 等, 2010, 国际关系中的城市行为体,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pp.201-208.
- 李小林 编, 2016, 城市外交(理论与实践),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习近平, 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 新华网, 2013.10.25.
- 习近平, 在中国国际友好大会暨中国人民对外友好协会成立60周年纪念活动上的讲话, 人民日报, 2014. 05. 16.
- 祁怀高, 2010, 中国地方政府对中韩建交的影响: 以山东省的作用为例, 当代韩国, pp.65-78.
- Chung Jae Ho 1993,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 Korea-China Bilateralism: Origins, Progress and Prospects, Ilpyong Kim and Hong Pyo Lee(eds.), Korea and China in A New World: Beyond Normalization, Seoul: The Sejong Institute, pp.257-309.
- Hsing You-tien , 1998, Making Capitalism in China: The Taiwan Conne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5-7.
- Linda Jakobson and Knox Dean, 1998, New Foreign Policy Actors in China, SIPRI Policy Paper, No. 26.